요셉의 프로파일링

(창37:1~11)

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프로파일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요셉의 Profiling'

19세기 말, 1887년부터 시작해서 1889년까지 13번에 걸쳐서 영국에서 살인이 일어나는데,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잭 더 리퍼'라는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연쇄 살인범이 13번에 걸쳐서 사람을 죽이는 동안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피해자를 부검한 영국의 외과의사인 본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법을 적용합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잭 더 리퍼 연쇄 살인범의 마지막 피해자의 부검을 하고 나서 그 상처의 패턴이라든지, 그 피해자를 죽인 다음에 얼굴에 깨끗한 시트를 덮어놨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잭 더 리퍼라는 연쇄살인범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차분한 사람일 것이다. 악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 것이다. 말쑥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중년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파일링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대중들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홈즈나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에 열광했습니다.

오늘날의 대중들은 무엇에 열광합니까? 범죄심리학, 법의학이 나오는 CSI 같은 과학수사 물에 열광합니다.

프로파일링이란 범죄 현장에서 얻어진 증거물에 근거해서 그 범인의 습관, 나이, 성격, 직업, 범행 수법 등을 추론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범인이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나타난 인물을 기준점으로 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프로파일링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짧게 나오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한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의 큰 불행으로 빨려들어 가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17살 청소년에 불과한 이 요셉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내일 본문을 보면 당장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말로만 듣던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형들 밑에서 살던 이 청소년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겠으며, 그리고 또 팔려가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불가사의합니다.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그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형편을 무릅쓰고 노예생활을 충직하게 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충직하게 일한 결과가 좋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추행 범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 생활을 또 어떻게 견뎌냈을 것인가? 그러다 꿈을 해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총리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동화 같은 인생의 굴곡들, 불과 13년 만에 이루어진 굴곡들이지만 어떻게 이 험악한 굴곡을 관통해나갈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범인을 잡을 때에 프로파일링을 하듯이 요셉의 사람됨을 프로파일링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파일링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봅니다.
그 당시 나이가 17살이었다는 것은 본문에 나온 것이고,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108세이고 아직 이삭이 죽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68세로 임종 12년 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때의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기 위해서 오늘 3절의 한 구절에 주의를 집중해봅니다.
3절에서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점진적으로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점점 더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하게 되었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도 오해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를 야곱의 편벽된 성격에서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얍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라헬을 위해서 14년의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정열적인 이 모습, 축복을 추구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집념, 이런 성격에 기인한 결과로 요셉을 편애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러한 성격도 작용한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3절의 내용을 보니 점진적으로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된 이유가 요셉 자신의 사람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살이면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모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깎이겠고 원만한 사람은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특성들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야곱은 그 요셉의 특성을 보고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얻었다는 말 때문에 늦둥이기 때문에 좋아했다고 보기에는 베냐민은 더 늦둥이입니다. 베냐민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보아서는 늦둥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프로파일링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이 빠질 만큼 사람됨의 매력이 느껴지는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근거해서 요셉의 프로파일링을 시작해보면 채색 옷이라는 것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점진적으로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열한 아들과 요셉을 볼 때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면 분명한 구분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의 사람됨이 다른 열한 아들과는 보통 옷과 채색옷의 차이만큼이나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있음을 야곱이 봤다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채색 옷으로 표현해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르다'라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하지 않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른 보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좋아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 맥락을 다 생각해서 앞으로 겪을 일도 알고 있고, 요셉 이전에 있었던 형제들의 상태나 야곱의 상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이 '형들 틈에 들어가서 양을 치다가 형들이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다면 와서 알려라'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양을 친다는 것은 품삯을 주는 목동들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하는 일입니다.
르우벤이 서모 빌하를 범했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들었다고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자기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마음 가는대로 육체가 보고 있는 빌하라는 서모에 대해서 끌려간 것입니다. 노예상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르우벤이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인데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봐야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고, 들춰내봐야 내 장자의 잘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에게 자식들의 잘잘못을 캐내어 보고하라고 보낸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발적으로 고자질을 한 것이거든요.

이 요셉의 자발적인 고자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결코 주변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나 대세의 흐름 등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만의 내적인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준비가 17살 소년에게 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누이 디나가 추행을 당했을 때에 형제들이 단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합을 할 때에 그 단합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양들을 몰고 밖으로 나가면 믿을 사람은 형제들 밖에는 없습니다. 치안부재의 상태에서, 어느 마적 떼가 와서 양떼를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다음 부분에서 나옵니다만 세겜이라는 곳은 디나 추행사건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동네입니다. 그런 곳인데 믿을 것은 형제들 밖에 없기에 형제들과 뜻을 같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 때에도 보면 나머지 형제들이 의논을 합니다. 르우벤이 의견을 내고 유다가 의견을 내고 합니다. 유다의 의견에 따라서 팔기로 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고 서로 단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고자질을 했다는 것은 형들과 의견을 같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어떤 의견도 동의할 수 없을 요셉 자기만의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독특한 관점과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할 때에,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세상을 보는 태도와 눈이 독특하다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독특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오겠지만, 쉽게 말하면 일본과의 독도 문제가 있어서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때

에 요셉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독도와 일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혼자 외톨이가 되지만 외톨이라고 해서 요셉이 기가 죽거나 외로워했거나 힘이 빠져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태도와 자세와 관점을 그대로 유지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자질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형들과 같이 어울리지를 않았고 형들과 행동을 같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행동과 의견과 단합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무엇인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추수가 끝나서 곡식 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던 곡식 단이 벌떡 일어나자 형들이 묶던 열한 곡식 단이 땅바닥에 부복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두 번째 꿈은 9절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을 향해 경배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의 내용은 그 당시의 히브리적 전통상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부복하고 한둘도 아닌 열 명의 형들이 아우에게 부복을 합니다. 동생인 베냐민이 부복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꿈을 왜 꾸게 되었느냐?
야곱처럼 장자권을 탈취하려는 야망 때문에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섭리가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야단을 칩니다.
10-11절에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야망가도 아니고 기존 질서를 역행하는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17살이나 되어서 잘잘못을 따져서 아버지에게 보고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던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와 형들이 싫어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늘을 향해 귀를 열어둔 사람입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어둔 사람입니다. 모든 형들이 이 땅에서 육체에 매여 있는 마음, 서모 빌하가 육체의 눈에 예쁘게 여겨져서 마음에 전달이

되면 그 마음을 따라가는 행동을 하면서 서모를 범하는 그런 기질들이 속에 숨겨져 있어서 불끈불끈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육체에 매여 있는 마음이 가는대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만나고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마음이 반응하며 산 것이 아니라, 육체가 만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몇째 아들인 것과는 상관없이 하늘에 마음을 열고 하늘이 지시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할아버지 이삭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할아버지 이삭에게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랬는지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요셉이 17살이 될 때에 이삭과 함께 있었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으니까 12년 정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항상 마음을 하늘로 향해 열어 놓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하늘에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하늘에서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삶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대로 내질러버리듯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꿈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발톱을 숨기듯이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실에서부터 자기의 생각과 행동의 이유를 발견해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참, 요셉은 비현실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로 만나는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항상 하늘에 대해서 반응하니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추행 범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꿈을 해석했다고 총리가 된다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비현실적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통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현실입니까? 비현실입니까? 땅 위에 있는 상황만 현실입니까? 하늘이 현실이에요.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땅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더 앞선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에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땅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라서만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땅 위의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야곱처럼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올 것이라고 땅의 상황에 반응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똑같은 처지였다면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분이고 앞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땅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내 몸보다도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땅의 상황을 먼저 현실로 느끼면서 거기에 반응하며 그 뒤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 땅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중독된 사람이고, 참 현실적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가장 올바르게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은 자, 그가 바로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먼저 있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에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육체가 만나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다는 내 현실에 대해서 내 육체가 만나면 마음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비현실적인 것이고, 땅에 중독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의 중독으로부터 깨어나서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셉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아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사람에 대해서 죽고 사실에 대해서 죽고 상황에 대해서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심어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대로 내질러버립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의 질투가 폭발해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려가는 불행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팔려감으로 애굽 전체뿐만 아니라 근동 전체의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수행해나갑니다.
그의 삶의 역정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현실적이었던 사람이고, 이게 바로 요셉의 프로파일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반응하는 우리들은 땅에 중독된 사람들이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참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에 더 가까이 계시고 먼저 계시고, 이 땅의 어떤 상황보다도 먼저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 이 땅에서 움직이며 생각하고 말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자가 바로 현실적인 자입니다.

요셉은 프로파일링의 결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청룡열차를 탄 듯이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굴곡을 관통하고 뚫고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성취해내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요셉과 같이 하늘에 마음을 열고 땅을 무시함으로써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하나를 붙잡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